

여수단지, 생산·수출 증가세 둔화

2012년 수출 382억달러로 소폭 늘어 ... 중국 자급률 향상으로 타격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생산 및 수출액이 3년째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에 따르면, 여수단지 226개 사업장의 생산 및 수출이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후 2009년 감소했으나 2010년부터 다시 늘어나 2012년까지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8년 226사의 총생산액은 61조4486억원, 총수출은 227억14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생산액이 52조8944억원으로 줄어들고 수출액은 183억2100만달러로 감소했다.

2010년에는 생산액 70조1326억원에 수출액 254억3100만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1년 생산액 89조6139억원에 수출액 347억8000만달러, 2012년 생산액 97조146억원에 수출 382억2300만달러로 소폭이지만 3년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한 것은 관련기업들이 2009년 발생한 유럽발 금융위기 파장으로 여수단지의 주요 내수시장인 중국 수요가 급감했고, 특히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수단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생산과 수출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국내외 시장의 변수들이 많아 2013년 경기전망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30>